

“하반기, AI 반도체 열풍 계속된다 밸류업 세제지원에 금융주도 강세”

美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 불확실성
주식 관련 지수적 움직임 제한적
반도체·전력기계 등에도 관심

금융당국 구체적 세제지원 언급에
밸류업 대표 금융·증권주 신고가

하반기 주식시장 대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급되고 있다. AI 열풍 지속과 정부의 주주환원 세제 인센티브 발표에 시장의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미국 대선, 프랑스 및 영국의 조기 총선 등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지수 추종보다는 특정 섹터, 테마에 대한 주목도가 오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반기 주도주로는 AI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 종목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제 이슈 중 하나이다.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진다. 게다가 당선자에 관계 없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글로벌 변수가 잔존할 전망이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반영됨에 따라 주식과 관련해 지수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요 테마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AI가 2024년 하반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혜 테마에 대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AI 열풍으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반도체, 전력 기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음식료, 게임, 그리고 수출 수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상승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활기찬 모습의 이미지.

가 견조하게 유지될 화학(소재화학), 바이오(CDMO)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국내 시장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슈가 공존한다. 전날 금융당국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주주환원분 5%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참여 기업 등 기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밸류업 세제 지원이 나오자 밸류업 관련주도 다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날 밸류업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증권주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날 KB금융 1.4%, 신한지주 3.2%, 하나금융지주 2.7% 등이 모두 상승했다.

하인혁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밸류업 수혜, 예상되는 관점에서 금융주를 선호하고 있다”며 “밸류업 수혜,

금리 하단 방어 기대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센티브 중 ▲주주환원 증가 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 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밸류업 기업 기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는 배당을 주는 쪽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볼 수 있고,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 → 9%, 최대 45 → 25%)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 등은 배당을 받는 쪽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해석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세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긍정적”이라며 “1993년 도입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20%를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지배주주 입장에서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KB증권,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만든다

‘My star 인텍싱’ 랩 서비스

KB증권은 ‘KB증권 다이렉트인텍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My star 인텍싱(KB Able Account-지점운영형)’ 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KB증권이 지난달 28일에 출시한 ‘My star 인텍싱’은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인 ‘다이렉트인텍싱’ 기법에 전문 프라이빗뱅크(PB)의 역량을 더해, 고객과의 일대일 컨설팅으로 개인화된 투자지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일임형 랩 어카운트 서비스다.

‘My star 인텍싱’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전문 역량을 갖춘 PB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투자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본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KB증권 다이렉트인텍싱’의 프리셋(사전 제시된 예시 포트폴리오)을 ‘My star 인텍싱’ 랩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KB자산운용의 ‘Myport’ 엔진을 활용하여 더욱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KB증권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시장 핵심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들을 선별한 ‘AI 반도체의 꽃, HBM 반도체 전략’ 프리셋, 기업가치 제고 수혜 관련 ‘뚝딱! 기업가치 제고, 저PBR & 저평가주’와 같은 국내주식 프리셋,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주식 프리셋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객이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300여개의 다양한 테마별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son@

ETN 시장 ‘꿈틀’... 증권사, 상품 출시 분주

첫 발표보다 14조가량 규모 커져
ELS·ETF 단점 보완으로 ‘주목’
KB·미래에셋증권, 美 주제로 출시

분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상장지수증권(ETN)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 5월 ETF·ETN 시장 전체자산총액은 약 16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기록한 108조7000억 대비 53조 증가한 수치다.

상장지수상품(EPT)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기에 ETN 투자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5월 기준 ETN의 지표 가치총액은 약 1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ETN 첫 시장동향을 발표한 2016년 3월에 비해서는 약 14조원가량 규모가 커진 셈이다.

ETN 상장 종목 개수도 2016년 3월 81개였다면, 현재 국내에 상장된 전체 ETN은 387개에 달한다.ETN이 이처럼 증가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ELS와 ETF의 단점을 보완한 점이 강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LS(주가연계증권)는 일반적으로 중도에 사고팔 수 없다는 점이, ETF는 지수나 주가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ETF는 세부 구성 종목과 운용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초지수와 ETF 간 수익률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ETN은 기초지수변동에 따

른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만들어져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며, 증권사가 무보증·무담보 신용으로 발행하기에 기초지수가 변화한 만큼 수익률이 결정된다. 만기가 되면 투자자에게 성과대로 수익을 지급하며 만기는 1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다. 또한 기초지수 구성 종목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하는 ETF와 달리, ETN은 5개 이상만 담으면 발행할 수 있다.

ETN 상품은 천연가스나 원유처럼 원자재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주제로 한 ETN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실례로 KB증권은 ‘KB 미국채 10년 ETN’를 비롯해 미국채를 담은 ETN 6종목을, 삼성증권은 환노출형 나스닥 100 ETN을 신규 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을 테마로 3종목만 편입한 성장형 상장지수증권(ETN)을 업계에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규모 150조를 돌파한 ETF와 비교하면 작은 시장일 수 있지만 원자재 밸리시기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에게 ETN은 인기가 있다”며 “종목 투자가 조심스럽고 일정한 수익을 원한다면 들여다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ETN을 매매할 때 상장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증·무담보 상품에 발행 증권사가 파산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신용과 원자재 연동 ETN은 위험하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조언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식을 줄 모르는 AI 인기... ETF 수익률 ‘쑥’

최근 한달간 ETF 수익률 1·2위 차지
AI 수혜주 기대 기업에 투자자 ‘관심’
삼성운용, 전력 인프라 종목 출시 예정

빅테크,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AI 투자 열풍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AI 관련 ETF가 이 같은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ETF 수익률 상위 1, 2위에는 AI 관련 ETF가 자리했다. ACE 미국빅테크 TOP7 PLUS 레버리지와 AR IRANG 미국테크 10레버리지 iSelect는 각각 약 28%, 27%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도 20%의 수익률을 기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ACE AI 반도체 포커스(13.30%), HANA RO 글로벌 반도체 TOP10 SOLACTIV

E(12.75%), ACE 글로벌 반도체 TOP4 Plus SOLACTIVE(12.31%), KODEX 미국 반도체 MV(11.06%), KOSEF 글로벌 AI 반도체(10.12%) 등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AI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데다 최근 애플, 어도비, 브로드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과 국내의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ETF의 수익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AI와 관련한 미국 빅테크, 반도체 위주에서 전력 인프라, 에너지 등 AI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전력 인프라 관련 ETF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미국과 한국 시장에 상장된 AI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미국 AI 전력 핵심인

프라 ETF’와 ‘KODEX AI 전력 핵심설비 ETF’ 2종을 오는 9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의 액티브 ETF를 위탁 운용하는 자회사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같은 날에 ‘KoAct AI 인프라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하반기에도 빅테크, 반도체 등 AI 관련 ETF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등에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기업들의 실적 성장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AI 관련 산업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며 “이 같은 전망을 올 하반기도 해당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